

자판기 기술자격증 제도 도입 가능한가

자판기분야도 이제는 기술 검증시대를 열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지금까지는 산업계에 축적된 기술에 대한 검증제도가 없다 보니 기술인력들의 직업에 대한 만족도와 성취욕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다. 또한 사후관리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도 그다지 만족스러운 수준에 와 있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술자격증 제도의 도입은 기술의 향상과 활용 측면에서 크나 큰 기대효과를 기대케 한다. 이번 란에서는 협회가 도입을 적극 검토중인 자판기 분야의 기술자격증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자격증은 전문성과 능력평가의 척도

현대사회는 자격증의 시대이다. 자격증은 가장 객관적으로 해당분야의 전문성과 능력을 측정하는 척도이다. 따라서 해당분야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는 개인의 재능과 능력, 전문성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남들보다 폭넓게 부여받을 수 있게 된다.

이같은 자격증 제도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특히 전문성이 필수요건으로 작용하는 분야는 아예 자격증이 없으면 능력발휘의 기회조차 박탈해 버리기까지 한다.

산업구조가 다양화, 전문화되어 갈수록 자격증제도의 도입이 확대되어 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현재 많은 산업분야에서는 우수인력의 양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기술자격증 제도의 도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특히 이같은 기술자격증 제도의 도입은 노동부산하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적극적으로 검토시행을 실시해 온 탓에 여러 분야로 도입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판기 분야에 있어서도 국가기술자격검증의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할 시점에 있다. 자판기 기술분야의 전문성을 높이고 전문인력들의 소속감 및 성취감 향상을 위해서는 기술자격증 제도의 도입 필요성은 분명 높다고 할 수 있다.

자판기 기술자격증 도입, 왜 필요한가

자판기분야에 있어 지난 20년의 시기는 급속한 시장확대의 시기였던 동시에 혁혁한 기술력 발달의 시기 였기도 했다. 그동안 축적된 기술력은 이제는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은 수준이 되었고 소비자들의 품질에 대한 만족도도 크게 높아진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력이 체계화되고 집약화되어 보다 효율적인 수급 구조를 가지고 있나 하는 측면을 생각해 보면 아쉬움이 많다. 대개의 경우 이 기술력은 집단 전체적인 수급구조를 가지고 있지 개별 창의적인 수급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즉 개인 기술자들에게 보다 창의적인 동기부여와 능력발휘의 기회를 제공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취약한 한계요인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이러한 상황에서 기술분야의 자격증이 도입된다면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기술 자격이 능력의 척도로 작용하는 현실이 된다면 개개인의 기술 창의력은 보다 촉발될 수가 있을 것이고 기술의 전문성과 애프터 서비스의 질 역시도 보다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現산업 현실에 있어 중요한 측면은 우수인력의 산업계 이탈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현재 자판기산업에 있어 기술 전문직의 직업에 대한 만족도는 그다지 높지 못하다. 동기부여는 물론 대우에 있어서도 능력에 따라 차별화 할 수 있는 객관적 장치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이렇다 보니 전문 기술직 인력들의 이탈도 많고 업체 별 유동도 심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문기술자격증제도 도입을 통해 직업에 대한 만족도 향상과 인센티브 부여 제도가 마련된다면 우수인력의 이탈과 유동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기대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

뿐만아니라 우수 기술인력을 산업계에 적극 유치할 수 있는 효과도 기대 할 수 있다. 자판기분야의 기술직 일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전문성을 갖추어야 인정받고 좋은 대우를 받는 메리트있는 직종으로 인식된다면 얼마든지 우수인력의 산업계 유치가 가능하리라 보여진다.

어떻게 자판기 분야로 도입 가능한가

현재 산업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 기술자격검증에는 5가지 자격검증이 있다.

첫번째 기술사 자격은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에 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에 입각한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시험, 시공, 감리, 평가, 진단, 사업관리, 기술관리 등의 기술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를 평가한다.

둘째, 기능장은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에 대한 최상의 숙련 기능을 가지고 산업현장에서 작업관리, 소속기능인력의 지도 및 감독, 현장훈련, 경영계층과 생산계층을 유기적으로 연대시켜 주는 현장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를 평가한다.

세째, 기사는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에 대한 공학적 기술이론지식을 가지고 설계, 시공, 분석 등의 기술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를 평가한다.

넷째, 산업기사는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에 대한 기술 기초이론지식 또는 숙련기능을 바탕으로 복합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를 평가한다.

다섯째, 기능사는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에 대한 숙련기능을 가지고 제작, 제조, 조작, 운전, 보수, 정비, 채취, 검사 또는 직업관리 및 이에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를 평가한다.

이같은 다섯까지 분야중 자판기 분야에 우선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분야가 산업기사 부문이다. 산업기사는 바로 현장에서 소비자의 품질 크레임을 해결하는 애프터서비스 업무를 주로 수행한다. 영업용기기인 자판기는 고장시 판매행위 자체가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분야보다 신속한 A/S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어떠한 고장에도 대처할 수 있는 양질의 A/S 능력을 갖추었느냐의 여부가 소비자 만족도를 좌우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자판기 산업기사 자격증 제도의 도입은 서비스의 수준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를 가져다주는 동시에 직업에 대한 소속감과 자긍심을 향상시켜 많은 우수인력의 유치 및 양성을 가능케 한다.

이 분야에 있어 자격증제도의 필요성은 과거에도 일부 주창되어 오긴 했지만 구체적인 액션은 없었다. 반드시 필요한 당면과제라기 보다는 장기적으로 볼 때 한번쯤 도입 필요성이 높은 과제라는 느슨한 인식이 산업계의 적극적인 추진을 가로막아 왔다.

그러나 산업발전과 점점 증가하는 자판기의 역할측면에서 볼 때 이제는 본격 추진해도 좋을 만한 시점에 와 있다. 특히 본 협회가 산업관리공단과 손잡고 본격 추진해 가는 쪽으로 방향을 설정한 이후에 비로소 제도시행의 실효성이 본격 검토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협회의 도입 계획

협회에서 우선적으로 도입하고자 하는 기술자격검증은 산업기사 부문이다. 기타 기술사, 기능장, 기사, 기능사 분야는 업체의 의견을 수렴해 도입 검토를 진행하게 되겠지만 산업기사 부문만큼 급하지 않다.

협회에서는 이미 산업관리공단에 자판기 분야의 기술자격검증의 필요성을 피력한 바 있다. 산업관리공단 측은 21세기 새천년의 세계화, 디지털화, 지식기반의 시대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신사업 분야를 대상으로 국가 기술자격종목을 적극 신설할 계획에 있어 산업계의 건의가 이루어진다면 자판기 분야에 있어서도 도입 여부를 적극 검토키로 약속한 바 있다.

이를 위해선 협회에서 정식적인 국가기술자격종목에 대한 신설 의견서를 제출하는 일이 급선무이다. 이 과정을 거쳐 신설종목으로 선정이 되면 협회와 공동으로 구체적인 도입방향과 검증 시행종목 선정 및 시험평가제도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게 된다. 시험평가는 주로 필기 및 실기 시험위주로 진행이 되게 되고 이 검토에서 일정 합격점수 기준을 통과하면 해당분야의 자격증을 발급한다.

협회에서는 지난 1월 14일부로 자판기 국가기술 자격증 제도 도입을 위한 업체 의견 조회를 現산업계를 주도하는 대기업에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업체 입장에서 적극적인 필요성을 느끼고 도입에 대한 적극적인 입장을 피력하지 못하고 있다. 업체들은 어느 정도 도입 필요성에는 동감을 하면서도 조금하게 서두를 사안은 아니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이다 보니 시간은 지났어도 아직은 검토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특히 올

해들어 시장상황이 최악이다 보니 당장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사안에만 급급하지 장기적인 과제에 신경을 쓸 틈이 없는 대외적인 요인도 작용한다.

따라서 보다 적극적으로 자판기 분야의 국가기술자격검증제도 도입 검토가 전면에서 진행되기 위해서는 유통분야에 있어서도 이 제도에 많은 관심과 의욕을 나타내는 일이 중요하다. 자체 A/S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은 물론 우수인력양성에 아주 요긴한 제도로 인식하고 적극적인 필요성을 주창해 준다면 지금까지의 느슨한 상황과는 다른 국면을 맞게 될 것이다.

구슬이 서말여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듯 아무리 유용한 제도도 적극적인 산업계의 의지로 가시화 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도 없다. 자판기 분야 기술 자격검증의 도입이 장기적으로 볼 때 산업발전과 인재양성, 기술 만족도 향상에 큰 도움이 된다면 더 이상 도입 검토를 미루고 있어서는 안된다.

고도의 기술 집약과 활용은 산업계가 만들어 가는 것이지 결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할 시점이다.